



# 湖南新聞



1946년 3월 창간 제 2576호

이메일 : ihonam@naver.com

홈페이지 NAVER 호남신문 검색

2018년 9월 6일 (음력 7월 27일) 목요일

## 전남 서남부 여객선 노후화 심각...20년 이상 24%

전남 서남부 항로를 운항하는 여객선 10척 중 2척 이상이 선령 20년 이상된 노후화된 선박으로, 현대화사업이 시급한 것으로 드러났다.

5일 목포지방해양수산청에 따르면 목포와 완도지역을 잇는 여객선 7척 중 선령 20년 이상이 17척으로 전체의 23.9%를 차지했다. 특히 목포~홍도와 목포~제주 등 황금항

로를 운항하는 11척 중 10척이 20년 이상됐으며, 나머지 1척마저 선령이 16년에 달했다.

또 선령 10~20년은 21척(29.6%), 1~9년은 33척(46.5%) 등 평균 선령은 11.37년으로 나타났다.

운항 주체별로는 정부의 지원을 받는 보조항로를 운항하는 여객선의 선령이 낮은 반면 민간 여객선은 상대적으로 노후화가 심각했다.

### 목포~홍도·제주 황금항로 11척 중 10척 20년 넘어

### 목포해수청 “펀드·이자 보전 등 현대화 사업 유도”

목포해수청은 노후 여객선에 대해서는 여객들의 편의와 안전을 위해 현대화사업을 추진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해수부가 지난 2016년부터 시행하고 있는 현대화 펀드와 이자보전 등을 통해 여객선사의 자금문제를 해소하고 여객선 건조 활성화를 유도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김평전 목포지방해양수산청장은 “목포를 찾는 여객선 이용객이 연간 600여 만명에 이르는 등 연안여객선의 안전성이 요구된다”면서 “20년 넘는 일부 차도선과 카페리 등에 대해서는 현대화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김광춘 전남서부취재본부장



### 가을로 향하는 강진민생태공원

올해 여름 이후 처음으로 아침기온이 20도 아래로 떨어진 5일 오전 강진군 강진민생태공원에서 주민들이 선선한 날씨 속에 길다란 길을 걷고 있다. 1131종의 생물 서식이 확인된 이곳 강진민생태공원에서는 10월 12일부터 사흘간 제25회 남도음식문화큰잔치가, 10월 20일부터 9일간의 '강진만 춤추는 길대축제'가 개최된다.

## 전남도 공공시설·건축물 건립비용 공개된다

### 도의회 조례발의

전남도 예산집행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위해 공공시설과 공공건축물에 대한 건립비용 공개가 의무화된다.

전남도의회 안전건설소방위원회 나광국 의원(무안·더불어민주당)은 공공시설이나 공공건축물의 건립비용을 표지판에 명기하는 내용을 주요 골자로 하는 '전남도 공공시설 및 공공건축물의 건립비용 공개에 관한 조례'를 대표발의했다.

이번 조례안은 전남도내 5억 원 이상의 공공시설과 공공건축물의 경우 건립비용을 표지판에 명기하도록 하고 이 건립비용에 준하는 대수선 또는 리모델링에 대해서도

공개하도록 했다.

2017년도 전남도 총 공사계약은 187건 3088억원이며, 이중 이 조례의 적용을 받는 5억 원 이상 공사는 74%인 총139건 3081억원이다.

나광국 의원은 “전남의 재정지립도와 청렴도는 전국에서 하위권에 머물러 있다”며 “이번 조례 제정을 통해 도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예산을 효율적이고 투명하게 집행해 청렴 전남의 기반을 마련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이번 조례안은 안전건설소방 위원회 심의를 거쳐 오는 18일 제25회 전남도의회 정례회 본회의를 통해 의결될 예정이다.

김정환 기자

## 광주시, ‘물폭탄 피해’ 백운-주월동 하수도 정비

### 재난관리기금 등 투입, 내년 우기 전 마무리 예정

광주시가 폭우 침수 피해지역에 대한 하수관로 정비사업을 추진한다.

정비지역은 지난 8월27과 31일 두 차례 폭우로 침수피해를 입은 남구 주월동과 백운동 등이다.

5일 광주시에 따르면 백운광장 주변 하수관로 정비사업은 당초 지하철 2호선 착공시 시행할 계획이었으나 이용습 시장이 전남시·구 상생회의에서 남구청장 건의를 받아들여 백운광장 주변 대남대로에 대한 하수관로 정비사업을 조속히 시행하라고 지시하면서 추진하게 됐다.

이에 따라 시는 9월 중 사업을 시작해 내년 정미철이 오기 전에 마무리할 계획이다. 가용 재원은 재난관리기금과 재난안전특별교부세 등을 우선 활용할 예정이다.

시는 사업 추진에 앞서 8일에는 남구청에서 주민 대표와 전문가, 환경단체 등이 참여하는 주민설명회를 열 예정이다.

이를 통해 주민 의견을 적극 반영하는 한편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해 최대한 협조해달라고 당부할 예정이다.

서은홍 기자



### 여론조사

박원순서울시장이 범진보 후보군에서, 바른미래당 유승민전 공동대표가 범보수 후보군에서 차기 대선주자 선호도 1위를 기록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다.

여론조사기관 리얼미터가 지난달 27~31일 전국 성인 2507명을 대상으로 조사해 월 공개한 설문 결과 85% 신뢰수준, 표본오차 ±2.0%포인트에 따르면 범진보 후보들 중 박 시장은 차기 대선주자 선호도 12.1%로 오차범위 내 선두를 기록했다. 이낙연 국무총리(10.7%)가 뒤를 이었으며 정의당 심상정 의원(10.5%) 김부겸 행정안전부장관(10.4%)이 두 자릿수 선호도를 기록하며 선두권을 형성했다. 김경수 경남지사(9.4%), 이재명 경기지사(7.0%), 임종석 대통령 비서실장(3.8%)이 뒤를 이었다. 진보층을 대상으로 한 범진보 대선 주자 선호도 설문에선 박원순이 낙연 심상정 김경수 순이었다. 관련 인사의 속내를 상상해 본다.

신봉우 기자·자료사진=뉴시스

